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⑥ ⑤:40 절때까지 가보자(재) 5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코로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00 KBS 뉴스광장 40 KBS 파노라마 플러스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지)	30 KBC 모닝와이드
⑧ 15 코로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⑨ 00 신논어 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선군수 후보 토론회	10 좋은 아침
⑩ 10 팩트 10	00 KBS광주총국 지방선거 전남 보성군수 후보자 연설 20 다류 공감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⑪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KBS네트워크극선 필통 55 바른말 고운말(재)	15 사랑의 가족 45 인간극장 스페셜(재)	15 세계 최고를 찾아서 스페셜 55 MBC 정오뉴스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⑫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 05 우리말 겨루기(재)		20 주말특별기획 (호텔킹)(재)	00 SBS 12 뉴스 30 화점기행
① 30 뉴스 특급	00 KBS광주총국 지방선거 전남 함평군수 후보자 연설 35 강연 100% 특선	30 영상앨범 산	30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재)	30 한국의 맛(재)
② 40 직인직설	00 KBS광주총국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경력방송 40 강연 100% 특선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재)	10 장애인희망프로젝트 아름다운 부모들의 힐링	00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재)
③ 50 정승관의 시사방법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읽어버린 숲 25 마스크 마스크(재) 55 TV 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10 보글 국 원정대 40 헬로 키즈 애하! 지구탐험대	10 SBS 이슈인 사이드
④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KBS 파노라마(재) 55 틈틈이 생활채널	25 코파 반정의 동화 수사대 55 비타민(재)	30 신동방송 호기심 탐험대	00 직장! 탐플레이트 30 우리끼리 탐구생활
⑤	00 동물의 세계 40 남도자기그림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슈퍼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남씨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⑥ 0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정보통	10 세계 최고를 찾아서 스페셜 20 브라보! 멋진인생	05 남씨와 생활 10 KBC 생방송 투데이
⑦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 7 1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 한국의 밤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잘 귀순 말 해나)
⑧ 10 집 시간 가족(재)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밤상의 신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표적 세상에 이련일이
⑨ 40 특집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KBS 파노라마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20 생명최전선	00 수목 드라마 (골든 크로스)	00 수목미니시리즈 (개천천)	00 드라마 스페셜 (너희들은 포위됐다)
⑪ 00 웰컴 투 시월드	20 KBS광주총국 6.4지방선거 법정토론회 (광주시 교육감 후보)	10 해피 투게더	10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 토론회	15 순천만정원 개장기념 KBC축하쇼
⑫ 30 카톡스 S(재) ①:40 관찰카메라 24시간	40 인문강단(락) ①:10 이현철의 올댓뮤직	3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45 MBC 뉴스 24 ①:05 우리끼리 우리문화 스페셜	50 나이트 라인 ①:20 심장이 뛰다(재)



주말 황금시간대 방송 KBS '참좋은 시절'

'민폐' 캐릭터 산재·주인공들 사랑 지지부진

전작 '왕가네...' 인기 못 잇고 시청률 저조

지상파 방송 3사의 드라마가 뚜렷한 히트작 없이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특히 KBS 2TV 주말극 '참좋은 시절'에 아쉬운 시선이 쏠린다. 그나마 KBS 1TV 대하사극 '정도전'이 선 굵은 스토리와 박력 있는 전개로 체면을 살려주고 있지만, 더욱 폭넓은 시청층을 겨냥하며 주말 저녁 시청자들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줘야 할 KBS 2TV 주말극은 이 시간대 웬만하면 나오는 시청률 30%도 힘겨워하고 있다.

'참좋은 시절'의 지난 24일 시청률은 22%, 25일 시청률은 27.5%였다. 주말 저녁 8시대는 KBS 2TV 드라마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시간대. 시청률 30%는 넘어야 '인기작'이라고 할 수 있고, 바람을 타면 40%도 어렵지 않은 시간대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시작한 '참좋은 시절'은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는 데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보이며 3개월째 시청률 20%대에 머물고 있다.

◇뚜렷한 동력 부재...큰 재미 없이 작은 이야기들 편재=무엇보다 뚜렷한 동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개천에서 난 용'이 첫사랑과 이어질 것인가가 큰 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드라마는 그 부분을 그리는데 상당히 인색하다.

가난하고 멸시받던 집안 출신이지만 이제는 검사가 돼 금의 환향한 강동석(이서진 분)과 경주 최고 부자집 둘째 딸로 유학까지 갔지만 도중에 집안이 망하면서 귀국해 지금은 커피숍에서 일하는 신세로 전락한 차해원(김희선)이 결혼에 골인할 것인가가 드라마의 기동 줄기다.

그러나 '참좋은 시절'은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에도 친절하게 비중을 할애하느라 정작 주인공인 강동석-차해원의 러브스토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주말 연속극이 원래 조연들의 고된 활약이 필요하지만 이 드라마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평등한' 이야기 분배를 하면서 구성이 산만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그러느라 전개 역시 느려, LTE 시대에 우보(우보)로 천리길을 가려한다는 인상을 준다.

'참좋은 시절'은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수평적으로 배치하면서 주인공들이 조연에 묻혀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고, 사랑이든 복수든 용서든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을 확 이끌만한 큰 줄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한마디로 '알짜' 한방이 없다.

◇아려본 감성 건너드리지만...착하다고 하기엔 아쉬운=그럼에도 '참좋은 시절'을 꾸준히 보는 시청자들은 '드라마가 착하다' '도입부에 잡히는 스타일'이 정겨운 느낌을 준다. '아역들이 귀엽다' '이서진·김희선 두 주인공의 그림같은 투사이 아름답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주를 배경으로 4대 여러 식구가 한집에 모여사는 서민층 대가족의 일상은 흔한 '막장 드라마'와는 선을 긋는다. 최근까지 오지수라는 악당을 배치해 긴장감을 조성하긴 했지만 그 카드도 그리 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소 억지스러운 설정이라는 지적을 낳기도 했다.

전작인 '왕가네 식구들이' 확성기를 켜놓고 고성방가를 하듯 감칠맛 감정을 자극하며 '막장'의 길을 대놓고 걸었던 것과 비교하면 '참좋은 시절'은 제목처럼 '착한' 드라마임에 분명하다. 아예 '순진'할 정도다. 이 때문에 '왕가네 식구들'처럼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시청자의 입맛에는 '참좋은 시절'이 상대적으로 밋밋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그러한 상대평가에 기대지 않더라도 '참좋은 시절'은 주말 8시 황금시간대의 프리미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일일극이 아닌데 지나치게 '소소한' 에피소드도 종종 나열하고 있고, 주인공들 간 사랑의 화학작용은 뜨뜻미지근한데 '민폐' 캐릭터들이 곳곳에 산재해 짜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서울이 아닌 지방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그러하듯, 경주라는 무대가 기본적으로 아려본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지만 그 역시 어떤 신드롬을 일으키기에는 발화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하나의 '설정'에 머물고 만다.

이제 절반 정도 걸려왔기 때문에 '참좋은 시절'의 앞길에 반전이 놓여있을 수 있다. '착하다고 하기엔 아쉬운' 현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 기대된다.

"데뷔 12년 주인공 됐어요"

'빅맨'서 첫 주연 이다희



이다희(29·사진)가 2002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출전하면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12년에 주인공을 꿰찼다.

'나의 목소리가 들려'와 '비밀'에 이어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월화극 '빅맨'까지 세 작품 연속 섭임을 출연 중인 그를 27일 인터뷰했다. 그는 '빅맨'을 통해 난생처음 여주인공의 타이틀을 얻었다.

"제가 빨리 잘 됐다던 연기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오히려 제한된 큰 역할이 독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래 걸렸다고 하지만 전 제 배우 인생에서 딱 적합한 시기에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걸렸다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10여 년 천천히 배우고 익힌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이 어디 짧은가. '내게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거야'라는 믿음으로 버텼을까.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과연 일이 나한테 맞는지 방문했고 슬럼프를 겪었죠. 하지만 기회라는 게 잡으려고 한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니 어느 순간 편안해졌어요. 기회가 저한테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지금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잘 안 떠오를 정도예요.(웃음) 나한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나 싶죠."

10년 넘게 눈에 띄지 않던 이다희는 지난해 여름 방송된 '나의 목소리가 들려'로 마침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는 굳이 어출연한 '비밀'에서 강렬하고 섹시한 매력에 가진 권력자의 딸을 연기하며 이름 석자를 알렸고 또다시 휴지가 없이 '빅맨'에 캐스팅되면서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기회의 연속이다.

"처음 '빅맨' 제의를 받았을 때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역할이라 정말 좋았어요. 드디어 짝사랑을 벗어나 사랑받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웃음)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도 전작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연기 외에는 생각해보는 적이 없어요. 연기할 때 살아있는 것 같고 행복을 느낍니다. 이 일을 할 때가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아요. 촬영에 들어가면 잠 못 드는 날이 이어지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기를 할 때가 힘든 것 같아요.(웃음)"

연말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14:00 머물도사	17:45 두더지콩
05:40 장수의 비결(재)	〈생활백과〉	14:30 코코몽2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10:10 리얼도크 부부	14:45 곤	19:00 리얼체험 땅
07:00 곤(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00 지구를 지켜라	19:30 EBS 뉴스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11:20 세계대미기행	15:15 마사와 곤	19:50 달라졌어요(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오스트리아〉(재)	15:30 꼬마겨북 프랭클린	20:40 다류오늘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바두와 친구들	20:50 세계대미기행 (스리랑카)
08:00 당동명 유치원	12:10 연중기획	16:00 당동명 유치원	21:30 한국기행
08:20 책과 땅(재)	〈행복한 교육세상〉	16:20 우당탕탕 아이쿠	〈남도예술기행〉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05 시사채널E	16:30 책갈피 오정 또보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10 사이먼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아빠와 사춘기〉
09:05 책갈피 오정 또보(재)	13:20 풀잎! 페퍼는 즐거워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문화 고부열전
09:20 미술탐험대	13:30 고양이 파피	17:15 꼬마버스 타요	23:35 장수의 비밀
09:35 아기 고릴라 등등	13:45 반짝반짝 발명 클럽	17:30 로보카 폴리	24:05 EBS 스페이스 공감 1-2

EBS플러스1

00:00 울림포스 (국어 I)	10:50 2013 포스 (국어 II)
01:40 〈영어독해의 기본 II〉 (수학 II)	11:40 박봉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2:10 5분 과학-지구과학 1
04:10 〈과학〉	12:15 수능 특강 (수학 I B형)
05:00 〈한국사(하)〉(재)	14:00 〈미적분과 통계 기본〉 (국어 B형)
05:50 2013 포스	14:50 〈영어 A형〉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 I)	15:40 〈영어 B형〉
07:30 2014 포스 (문학 II)	16:30 〈한국지리〉
08:20 울림포스	17:20 〈사회문화〉
09:10 〈영어독해 기본 II〉(재)	18:10 〈경제〉
09:50 〈수학 II〉(재)	19:00 〈윤리와 사상〉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19:50 5분 과학-지구과학 I (재)
	20:00 수능특강 (국어 B형)(재)

EBS플러스2

07:0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과학 4-1〉
07:30 실용과학 비법 노트	16:20 〈과학 5-1〉
08:00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대비 강좌	16:50 〈과학 6-1〉
08:30 피부미용사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수학집중 6-1〉(재)
09:10 TV 중학 (국어 I②)	17:50 스쿨랜드(재)
09:50 〈영어 1〉	18:00 TV 중학 〈역사(하)〉
10:30 〈도덕 2〉	18:40 〈사회 3〉
11:10 〈국어 ③④〉	19:20 등업신공 〈역사(하)〉
11:50 〈영어 2〉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사회〉
12:30 등업신공 (사회 1)	20:40 〈세계사〉
13:10 〈역사 1〉	21:20 〈한문〉
13:50 〈역사 2〉	22:00 〈수학〉
14:30 〈사회 2〉	22:40 중학e포스 영어독해
15:20 만점왕 (과학 3-1)	24:00 EBS 역사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9일 (음 5월 1일 庚子)

子	36년생 절제하자. 48년생 많고 적고 간에 지금은 다 모아야 할 때다. 60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72년생 가닥이 잡히는 시점이다. 84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다. 행운의 숫자 : 67, 04
丑	37년생 주된 가치에 충실 하라. 49년생 주진은 되겠지만 성공물은 빈번하다. 61년생 먼저 다가선다면 충분히 개선 될 수 있는 관계다. 73년생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85년생 일을 때 잘 하자. 행운의 숫자 : 83, 92
寅	38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순탄함을 낳을 것이다. 50년생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만 한다. 62년생 일단 현재의 국면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74년생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3, 42
卯	39년생 큰 획을 긋는 길림길에서 있다. 51년생 급작스럽게 선회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낫다. 63년생 점진적인 발전 속에 일시적인 정체도 있다. 75년생 절대적이라고 여겨서는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87, 95
辰	40년생 스스로 우리나라 효과가 크다. 52년생 소원했던 관계가 복원되거나 미진함이 회복세로 돌아 선다. 64년생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76년생 뜻밖의 기회가 재물로 연결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5, 08
巳	41년생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53년생 실용만을 위주로 한다면 무미건조 하리라. 65년생 상호 연결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77년생 단순화 시켜야 집중할 수 있는나라. 행운의 숫자 : 74, 90

午	42년생 여유를 가졌을 때 더 쉽게 풀릴 것이다. 54년생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66년생 과녁치 말고 현대에 최선을 다하라. 78년생 실수로 인한 누락이나 망실이 생기기 않도록 주의 하자. 행운의 숫자 : 14, 93
未	43년생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골칫거리로 남는다. 55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 67년생 맥이 탁 풀려서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79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2, 17
申	44년생 방심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56년생 긴히 쓰이게 될 것이니 우선 챙겨 두는 것이 좋다. 68년생 모여서 논의해야 이루어 낼 수 있다. 80년생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함에 따른 한탄이 크다. 행운의 숫자 : 28, 75
酉	45년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장이 많을 수도 있다. 57년생 조정해야만 할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다. 69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즐기게 계속 되어야 한다. 81년생 금권에 휘둘리는 입장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4, 29
戌	46년생 불필요한 것까지 수용할 이유는 없다. 58년생 생기는 하나 완전히 만족 시킬만한 정도까지는 못 된다. 70년생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나. 82년생 자연스러운 흐름을 애써 막을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7, 62
亥	47년생 남은 종지만 정작 주인공은 실속이 없을 수도. 59년생 계획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71년생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백 번 낫다. 83년생 기발한 발상과 방법이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71, 7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